



제힘으로 더욱 부강해질 희망찬 2020년

새해 주체 109(2020)년이 밝아 왔다.

이 땅위에 사는 인민들은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저물어간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고 보다 큰 전진과 승리가 이룩될 희망찬 새해를 신심과 락관을 안고 내다 보고있다.

지난해 2019년에 이 행성의 공기는 매우 어수선했었다.

세계도처에서 내전과 군사적 충돌은 계속 확대되었고 살길 찾아 정든 땅을 떠나 타국으로 이민의 행렬에 오른 사람들은 부지기수였다. 행성의 많은 지역, 나라들에서 생존권을 요구하여 벌어지는 인민들의 항의집회와 시위는 년중 신문지면과 TV화면들을 가득 채웠다.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위기, 민생에도 각종 자연재난까지 겹쳐져 집집마다 지에 나앉은 재해민의 수는 이루어 헤아릴수 없었다.

1

하다면 공화국의 지나온 한해는 어떠하였는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으로 그 어느때보다 시련과 난관이 많았다. 공화국인민들의 의지를 꺾고 가는 길을 막아 보려고 제재가 더욱 조여졌고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적위협소동이 그칠새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사소한

동요도 없었고 창조와 혁신, 기쁨과 전진의 소식들이 전해졌다.

공화국의 지난 한해를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이라 할수 있다.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는 나라의 최북단 공장과 마을에서부터 최남단의 협동전야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나뉘었고 제힘으로 락원의 새 풍경을 마련해가는 인민들의 창조의 마치소리는 온 한해 강산을 진감시켰다.

그 나날 얼마나 경이적인 성과와 기적들이 이루어졌는가.

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은 더욱 강화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화되었으며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인민들이 선호하고 예호하는 각종 명제품, 명상품들이 쏟아져나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과학기술경쟁의 열풍속에 신발 전시회를 비롯한 각종 전시회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나라를 흥성있게 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알곡증산을 위하여 모두가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다수확농장대렬이 늘어났고 많은 다수확농장들이 배출되었다.

축산업과 파수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고기와 알, 과일생산이 늘어나고 수산부문에서 물고기잡이와 양어, 양식을 과학화하

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황금해의 력사가 즐거차게 이어지었다.

지난해에 삼지연시와 증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대건설이 립체적으로 통이 크게 전개되어 성대한 준공식들이 진행되었다.

온 나라의 축복속에 새집들이를 한 삼지연시와 증평남새온실농장마을에서는 인민의 기쁨이 흥겨운 춤과 노래, 웃음으로 활짝 꽃피었다. 증평땅에 뿌리내린 세쌍의 청춘남녀들의 결혼식은 새집들이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하였다.

지난해 국가준립의 초석이며 평화수호의 담보인 자위적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전면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과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조선인민군 항공비행공군 비행사회생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를 비롯한 전투훈련들과 위력한 주체무기들의 시험사격들은 강대한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의 실체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참으로 지난해에 공화국이 이룩한 값진 기적과 성과들은 자력갱생이야말로 번영의 보검이며 이 보검을 높이 들어쥐고나갈 때 무릇해될 일이 없고 극복 못할 난

관도 없다는것을 웅변으로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2

지난해에 이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정신을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심어 주어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해주신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와 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정치로선으로 재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것을 훌륭히 창조하도록 온 한해동안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과정만 보아도 그러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차례 건설현장을 찾으시고 총중으로 늘어진 외양을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개조하고 실내온천장의 내부형성을 인민들의 감성정서에 맞게 할데 대한 문제, 스키주로의 폭을 넓히고 원리투화를 관상적효과와 경제적 가치가 있게 하며 말타기도 할수 있게 승마공원을 새롭게 꾸리는 문제 등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주보검을 높이 들어쥐고나갈 때 조화를 이룬 현대건축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세우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도하신 형성안만 해도 무려 2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의 발기자,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제는듯 한 삼복철에도, 찬서리내리는 가을에도 건설장을 찾고 찾으신 그이의 정력적인 로고와 심혈에 의하여 새로운 온천문화, 온천문명이 인민들에게 안겨지게 되었다.

양덕의 산간벽촌만이 아닌 백두대지와 북방의 동해기슭에 펼쳐진 희한한 전변도, 나라의 전진적국력이 높이 펼쳐질수 있는 것도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러없는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 주시려 정력적인 령도의 자욕을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절세위원의 확고부동한 자주신념, 자력부강의 정신을 이어받아 공화국인민들은 자력으로 부흥하는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20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320동의 온실과 양묘장,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워야 하는 증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끝내였고 대규모의 종합적인 양덕

온천문화휴양지도 원수님의 구상을 받들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한 이 나라 인민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시고 결실하신것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아는 공화국의 인민들이기에 그이의 구상을 실천하는 일에 모두가 떨쳐나서고 세상을 놀래우는 창조의 기적들을 련이어 이룩한것이다.

지난해 10월 삼지연시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절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살아갈수 있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이 시련과 곤난을 디디고 기적과 위훈으로 더 높게 비약한 2019년의 총화이라고 하시었다.

올해에도 공화국이 가는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들이 적지 않게 가로놓여있으나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자력으로 자기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려는 공화국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을 돌려세우지 못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백승의 지략이 있고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으며 자력갱생의 역센 보검이 있기에 공화국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으며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것으로 되

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역센 신념을 더욱 굳게 버리고 불굴의 정신력을 만장약하기 위해 추운 이 겨울에도 백두산을 찾아가고있다.

선렬들의 피어린 자욱과 체취가 력력한 항일의 옛 전장들을 돌아보며 눈비람도 맞아보고 허리는 눈길도 헤치면서 때로는 모닥불에 연 손도 녹이면서 《백두산대하》 파정을 거치고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모진 굶주림과 강추위를 이겨내며 끝끝내 해방의 봄을 안아온 항일선렬들의 열렬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백철불굴의 정신,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침략세력을 쳐부신 자력갱생의 정신을 누구나 뼈속깊이 새기고있다.

절세위원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일심단결과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으며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무장한 신념의 강자, 창조적 영웅들이 무성한 대오를 이루고있기에 공화국은 강하고 그 승리는 필연적인 것이다.

밝아온 이해 2020년에 세상사람들은 자력번영의 보검을 쥔 조선이 가로놓인 모든 난관을 과감히 헤쳐나가면서 더 큰 승리와 전진을 안아오는 격동과 환희의 모습들을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승리의 신심드높이 맞이한 새해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힘차게 전진하는 이 땅위에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다.

창조와 기적의 한해를 보내고 제힘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룩해갈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의 첫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이 다지는 불타는 결의가 축하장마다에 어려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한마디 축하장에 쓰는 문구이건만 한해 또 한해 밝아오는 새해가 아름다운 희망과 꿈의 대명사로 되고있는 이 땅에서 누구나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백두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딪치는 모든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실 웅대한 작전을 펼치시었고 백두의 정신을 체질화한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있기에 승리는 변함없이 조선의 것이다.

그 누구도 백두의 기상안고 나가는 조선의 힘찬 전진을 멈춰 세울수도 되돌릴수도 없다.

본사기자 고성호

백두의 기상을 안고

죽지 않게 했고 곡식한 기아속에 서도 굶어죽지 않게 했으며 백만개의 총검을 맞받아 조국해방의 성전으로 떠밀어준것은 그들이 지녔던 강인한 정신이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그 정신이 위대한 정신이 홀려나 변함없이 백두산의 용자와 같이 력사의 기진 광풍에도 끄떡없는 조선의 모신 응축되어있기에 인민들은 백두산을 사랑하고 마음의 기둥으로 안고 사는것이다. 백두의 밀림속에서 항일빨찌산들이 창조한 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연한 투쟁정신이다.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마를 타시고 백두대지를 힘차게 달리시며 백두양에 뜨거운 선혈을 뿌려 조국해방의 성업을 이룩하였던 항일빨찌산의 피어린 력사를 뜨겁게 안아보시었다.

그날에 그이의 모습은 백두의 밀림속을 누비시던 항일빨찌산대장의 모습이고 백두산의 아들, 백두산형의 장군전설속의 천리마가 날아오르게 하였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사상 류례없는 시련도 뚫고 헤쳐나갔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백두의 정신을 안고 살기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신념이 굳세고 고

의 심중을 경건히 새겨안아보느라니 우리가 어떤 각오를 안고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이 한길만을 가야 하겠는가 하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고, 그래서 마음과 어깨는 더더욱 무거워지지만 힘이 용솨음친다고 말씀하시었다.

백두산의 용자가 변함이 없듯이 백두에서 창조된 위대한 정신이 그 어떤 탈색도 오염도 모르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줄기차게 이어질수 있는것은 대를 이어 위대한 승령을 모시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온 나라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백두산으로 향하고있으며 백두의 정신과 기상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오늘 공화국이 가는 앞길에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백두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딪치는 모든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실 웅대한 작전을 펼치시었고 백두의 정신을 체질화한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있기에 승리는 변함없이 조선의 것이다.

그 누구도 백두의 기상안고 나가는 조선의 힘찬 전진을 멈춰 세울수도 되돌릴수도 없다.

새해가 일어났다.

어렵고 부족함이 적지 않은 속에서도 공화국은 자립경제의 토대를 확고강화하여 경제를 새로운 성장단계로 이행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왔다.

자재의 힘과 기술, 자원이 의거한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이 있게 벌어져 온 나라 방방곡곡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끊없이 울려 퍼진 잊지 못할 지난 한해였다.

자랑찬 승리를 떨쳐온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고 걸어갈 밝은 앞길을 내다보며 공화국인민은 심장으로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이의 두리에 철들같이 뭉쳐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변침초따라 용진해가려는 인민이 있어 새해에도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더 높이 펼쳐지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더 활짝 꽃피어나리라

는것을. 그래서 승리의 신심 더욱 드높아지는 2020년 새해이다.

본사기자 김철